

광주·전남 건설현장 재해율 10년만에 2배 뛰었다

광주·전남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재해율이 2배 가량 상승해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의 2013년 기준 재해현황 잠정통계에 따르면 광주 및 전남지역 8개 시·군(사업장 6만4500개, 근로자 47만 1000여명)의 건설업 관련 재해율은 1.10%로, 전국 평균 0.92%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00명 가운데 1명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재해율은 지

작년 재해율 1.10%

100명중 1명 산업재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소규모 건설현장 취약

난 2004년 0.58%였으나 1.10%로 올라 2배 가까이 뛰었다. 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비율) 역시 2010년 1.31에서 2013년 2.79로 2배 이상 뛰어 올랐으며 전국 평균인 2.21보다 훨씬

높았다.

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한 곳은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이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현장의 재해자는 건설업 재해 가운데 44.3%, 사망자의 50%를 차지해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의 경우 재해율은 2003년 0.63%에서 2013년 0.44%로 감소했으나 최근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면서 '취업초보 근로자'의 재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 및 숙박업과 도소매, 건물종합관리 등 7대 업종이

서비스업 재해의 86.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6개월 미만 미숙련 근로자가 재해자의 50%나 발생해 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는 대기업 사업장과 중소기업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비율로 보면 대기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더욱 높았다.

6만4500개 사업장 가운데 97.8%(6만3081개)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은 전체 재해자의 58.1%, 사망자의 67.0%를 차지했으나 1419개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자의

41.9%, 사망자의 33.0%가 발생해 대기업 사업장도 재해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정재중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공사현황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해 현장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와 타이어 등 지역 대기업과 20개 고위험 제조업을 중심으로 올해 집중 기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6일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광주 산업기술 R&D 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 산업기술 R&D 교육센터 개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테크노파크 본부동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6일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광주 산업기술 R&D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산업기술 R&D 교육센터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교육이 진행되는데 따른 지방 교육생의 불편 해소 및 추가 개소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앞으로 교육생들의 경력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기초과정인 R&D 실무과정과 R&D 수행기관 중심의 전문과정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과정은 사업계획서 작성, 협약 체결 요령, 평가관리 대응, 사업비 집행관리 등 R&D 전주기에 대한 이론 중심의 기본과정이며 4일(25시간)간 진행된다. 전문과정은 실시간통합연구관리시스템(RCMS), R&D 사업비 집행·관리, R&D 규정, 과제수행 실무 등 R&D 수행기관 중심의 교육 과정이며 2일(14시간)간 실시된다. 전한수 관리원 기획본부장은 “이번 광주 산업기술 R&D 교육센터 개소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시작과 R&D 수행연구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주택조합 자격...국토부 주택규제 완화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에 허용하기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작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규모 제한도 완화해 중대형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

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봄 청포도 맛 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 칠레산 씨 없는 청포도가 선배 인기를 끌고 있다. FTA 체결 이후 가격이 낮아진 칠레산 포도는 1kg에 65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 '광주고용포럼'

광주상공회의소가 17일 오후 2시 제40차 광주고용포럼 정기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한국지역고용학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명숙 전남대 교수의 '광

주시 여성유망직종발굴을 위한 구인 수요 실태조사'와 정진철 조선대 교수의 '여성 및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해소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뒤 참석자와 고용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LH, 나주혁신도시·학동 등 상가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B9블럭 단지의 상가(2호), 광주 학동 2(3호), 광주백운2(1호)를 각각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전남혁신도시 B9블럭은 국지도 49호선으로 호남고속도로, 장성 IC진입,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및 광주송정역진입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선호도가 높은 단지이며 단지 세

대수(919가구, 2015년 2월 입주예정) 대비 상가규모도 적정해 상가분양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부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통해 임차분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차 참여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제한은 없다. 문의 (1600-1004).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2014 북경 모터쇼' 참가

금호타이어가 20일부터 열흘간 중국 북경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리는 '2014 북경 모터쇼(Auto China 2014 - Beijing International Automotive Exhibition)'에 참가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모터쇼에서 신제품론, 모터스포츠존, 테크놀로지존 등 테마별로 제품 전시존과 이벤트존 등 총 8개 전시존을 구성, 18개의 제품을 선보인다. '기술력'을 컨셉트로 부스 내 혁신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테크놀로지

(Technology) 존에서는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셀프 실링 타이어(self-sealing tire)인 실란트 타이어를 비롯해 국내 유일하게 항공기 타이어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항공기 타이어를 볼 수 있다.

또 엑스타, 솔루스 라인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컨셉트 타이어' 영상도 상영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타이어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광주서 보험범죄 예방 캠페인

보험업계가 날로 증가하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친다.

생명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우승)는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버스종합터미널과 양동시장 등지에서 금융감독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과 함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

인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우승 본부장은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전수 지침에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만들어졌고 금감원과 보험회사 등이 협조해 기획·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프

로야구 광고, 극장용 보험범죄방지 홍보동영상, 병원 내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전적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전국적으로 23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광주본부 관할인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가 119건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92.21 (-0.06)	▲ 코스닥지수 565.96 (+3.85)	▲ 금리(국고채 3년) 2.89% (+0.01)	▼ 원·달러 환율 1037.70원 (-3.20)
----------------------------	---------------------------	-------------------------------	-------------------------------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예향의 도시 광주·전남
예향투어가 함께 하였습니다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10,900
초등학생.....7,000
소인(미취학)....4,000
음료.....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원타, 쥬스)

• 프리미엄 최상품 양념치킨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올일류와 신선한 허브 육성
• 친환경 무공해 신선농산물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